

인터넷 신문기사로 본 민간요법 유해사례의 위험성

Risk associated with Adverse Events of Folk Medicine Reported in the Internet News Articles

박정환*, 문수정*, 김성하**, 배은경*,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침구경락연구그룹*

한국한의학연구원 침구경락연구그룹/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의생명과학**

Jeong Hwan Park(siegfriedd@kiom.re.kr)*, Sujeong Mun(azrain@kiom.re.kr)*,
Sungha Kim(bozzol@kiom.re.kr)**, Eun Kyung Bae(ekbae@kiom.re.kr)*,
Sanghun Lee(ezhani@kiom.re.kr)*

요약

민간요법 유해사례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질병 치료법인 민간요법 사용 중에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의도되지 않은 모든 불편감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통해 민간요법 유해사례의 형태와 위험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터넷트렌드(www.internettrend.co.kr)의 웹사이트 분석평가에 의한 점유율 상위 3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 다음(DAUM), 네이트(NATE)를 검색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근 5년간(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민간요법 유해사례의 신문 기사를 검색하였다. 총 973건의 신문기사가 검색되었고 18건이 포함기준에 만족되었다. 유해사례를 경험한 사람은 총 27명으로 연령은 4개월부터 76세까지이고, 남녀 모두에게 발생하였다. 2회 이상 반복적인 유해사례를 일으킨 민간요법으로는 독성 약재인 봉삼 또는 초오를 재료로 사용하여 복용한 요법, 피부에 외용하는 식초요법, 시술자에 의한 벌침 또는 부항요법이었다. 중대한 유해사례로서 사망이 11명이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복용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시술에 의한 사망이었다. 국내에서 대중적인 민간요법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가 활발히 상호 교류되며 전문 의료인의 지도 없이 오,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보건의료측면에서 국가나 의료계가 민간요법 유해사례에 대한 위험성 홍보 및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 유해사례를 보고 및 감시하는 체계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 중심어 : | 민간요법 | 인터넷 뉴스 | 유해사례 |

Abstract

Folk medicine is traditionally passed down to cure disease, and adverse events (AEs) of folk medicine are any unfavorable and unintended discomforts temporally associated with the use of folk medicin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Es types and risks of folk medicine through the internet news articles. Included in this analysis are all articles on the topic of folk medicine and AE reported in the top 3 online news websites (NAVER, DAUM and NATE) determined by InternetTrend™ (www.internettrend.co.kr). It was searched in the last five years (between 1 January 2009 and 28 February 2014). In total, 18 AEs articles of 973 news articles met our inclusion criteria. A total of 27 people were experienced AEs associated with use of folk medicine. Age was from 4 months to 76 years old, and it was occurred in both men and women. Folk medicine that caused AEs in twice or more was therapy that patient taking the dictamnus or aconitum of toxic herbal medicines, vinegar therapy of external use to topical skin, and cupping or bee sting therapy by practitioners. Death as a kind of serious AEs was 11 people, and 10 people were died after treatment by unqualified practitioner. Folk medicine that is popular and widely used in Korea is actively interacted wi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so it apt to misuse and abuse without guidance of health professionals. Aspects of health care system, we point out that the need for government and medical society establish not only correct health information plan and promotion of risk but also system as reporting and monitoring of AEs by folk medicine.

■ keyword : | Folk Medicine | Internet News | Adverse Events |

*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민간요법 발굴·보존 및 DB구축을 통한 지식 자원화(K14210) 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4년 10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2월 15일

수정일자 : 2014년 12월 11일

교신처자 : 이상훈, e-mail : ezhani@kiom.re.kr

I. 서론

민간요법이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질병 치료법으로 내복약물요법, 외용약물요법 및 비약물적인 시술요법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73%가 민간요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제도권 의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

민간요법 사용 중에는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민간요법 유해사례라고 하며, 민간요법 사용 중에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의도되지 않은 모든 불편감으로 정의된다.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주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복용하는 병원 치료약 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민간요법으로 복용한 내복약물이었고, 사용자의 23.9%가 내복약물을 복용하다 유해사례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3]. 또한 국내 부항요법 사용 중에 발생한 유해사례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증례 보고된 12명의 사례 중에 민간에서 무자격시술자나 본인이 직접 시술한 경우는 6명으로 절반에 해당되었다[4]. 민간요법으로 약물을 외용하여 유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는 관절통 치료를 위해 생마늘을 외용한 후 발생한 림프종성 접촉 피부염,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개구리자리를 외용한 후 발생한 접촉 피부염, 수족농포증에 목초액을 외용한 후 발생한 자국 피부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5-7].

민간요법은 의료인의 처방과 지도 없이 사용자의 판단 하에 부주의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무자격 시술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시술되고 있다. 민간요법이 현 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민간요법에 의한 유해사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3년말 기준 4,157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84.8%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8].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는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언론 매체와 비교하여 실시간으로 뉴스를 업로드할 수 있는 속보성 및 검색을 통해 원하는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 다양한 콘텐츠 및 댓글 등을 통한 뉴스 이용자와의 상호 작용성을 바탕으로 그 영향력

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의 민간요법 유해 사례가 기사화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여 그 유해사례의 다양한 양상과 위험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대상 및 방법

뉴스 기사를 검색하기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선정기준은 웹사이트 분석평가 서비스 업체인 InternetTrend™ (www.internettrend.co.kr) 의 분석리포트를 참고하였다[8]. 점유율 상위 3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 다음(DAUM), 네이트(NATE)를 검색 대상 포털사이트로 선정하였다.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지난 1년간 상위 3개 포털사이트는 검색엔진 점유율 95.16%, 뉴스와 미디어 카테고리 점유율 98.19%를 차지하였다.

선정된 상위 3개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의 검색 범위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최근 5년간)까지로 하였다. 민간요법 유해사례를 포함하는 기사를 검색하기 위하여 검색어 ‘민간요법, 부작용, 사망, 독성’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색결과를 토대로 다빈도 연관검색어로 ‘침’ ‘땀’ ‘벌침’ ‘부항’ ‘초오’ ‘봉삼’ ‘목초액’ ‘식초’ ‘백반’ ‘아토피’ 등 구체적 치료방법 및 약물, 적응증의 검색어를 선정하였고, 특이도를 높이기 위해 ‘중독’ ‘무면허’ ‘무허가’ ‘무자격’ ‘사고’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조사된 민간요법 관련 뉴스기사 중 유해 사례만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검색 결과 중 중복기사를 먼저 제거한 후 민간요법 유해사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를 제외하였다. 다음에 민간요법 유해사례로 추정되는 기사라 하더라도 대상자, 민간요법 유해사례를 일으킨 원인추정 요법, 유해사례 증상 등의 실제 발생사례로 구성된 내용이 아닌 것은 제외하였다. 동일한 사건의 경우 보도한 언론사가 다르고 기사 보도일의 차이가 있더라도 비슷한 제목 또는 동일한 시각이나 동일한 형식으로 서술한 것은 모두 중복기사로 간주하였다[9].

위와 같은 기준으로 논문을 선별하여 연구를 시행하

였으며, 민간요법 유해사례를 경험한 환자의 연령과 성별, 환자 수, 민간요법 유해사례를 일으킨 원인추정요법, 시술자 여부, 민간요법을 사용한 목적(적응증), 발생한 유해사례, 원인으로 추정되는 설명을 분석하였다. 또한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참고하여 민간요법으로 인한 중대한 유해사례 여부를 판단하였다[10]. 중대한 유해사례(Serious AE : SAE)는 유해사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나)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라)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마)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다.

III. 결과

1. 인터넷 기사의 검색 및 선별과정

민간요법으로 인한 유해사례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한 결과, 검색어를 입력해서 나온 기사가 총 973건이었다. 중복된 기사 814건을 제거하고 민간요법과 관련 없는 기사 76건과 유해사례가 아닌 기사 65건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민간요법으로 인한 유해사례 사례 기사가 18건이었다[그림 1]. 연구에 포함된 인터넷 기사의 제목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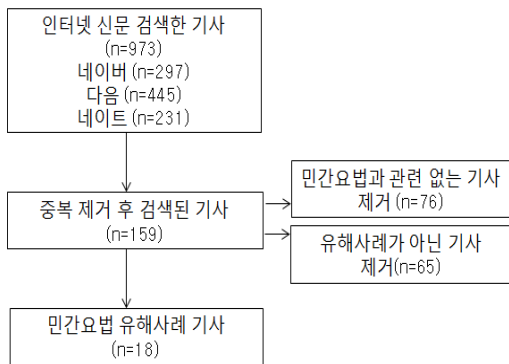


그림 1. 인터넷 기사 선택과정의 흐름도

표 1. 인터넷 신문기사 제목

번호	기사 제목
1	무면허 의료행위 싹뜸방 업주 구속
2	우리아이에 '카더라 처방' 은 위험!
3	봉삼 민간요법으로 인한 독성간염 사례
4	약주마시고 응급실행? '사약재료'로 술 담궈
5	아토피에 좋다는 식초요법, 잘못 사용하면 사망까지
6	藥 삼아 먹다가 毒 될라...건강식품 딜레마
7	4개월 아기 '아토피 치료' 위해 부항 받다 숨져
8	전설의 약재 '봉삼', 알고 보니 독성간염 유발 '독(毒)'
9	인터넷 민간요법 아토피 치료 '절대금지'
10	복어 毒이 난치병 藥?
11	벌침 맞고 혼수상태 무면허 시술자 구속기소
12	무릎통증 치료? 벌침 알레르기 조심하세요
13	무면허 시술로 임환자 사망, 건강식품판매업자 구속
14	위험천만 불법 한방의료행위 고발
15	불법 부항 치료 받던 60대 숨져
16	70대노인, 독성 한약재 '초오' 먹고 사망
17	스님이 놓아준 '신비의 한방주사' 는 마취제
18	무면허 벌침 시술 사망 사고낸 50대女 구속

2. 연도별 기사수

최근 5년간 민간요법 유해사례의 사례와 관련된 기사 수는 2009년 3건, 2010년 3건, 2011년 3건, 2012년 7건, 2013년 1건, 2014년 1건으로 총 1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표 2]. 검색된 기사에서 민간요법 유해사례를 경험한 환자는 총 27명으로 연령이 4개월부터 76세까지로 나타났고 남녀 모두에서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유해사례를 일으킨 원인 추정요법 종류

사용한 민간요법으로 유해사례를 일으킨 원인 추정요법으로는 경구로 복용한 봉삼, 홍삼, 초오, 초오로 담근 약주, 복어알, 삼백초, 어성초, 국화가 있었고, 환부에 황토, 목초액, 백반과 식초를 섞어서 바르거나 죽염이나 식초로 목욕하는 외용법이 있으며, 무자격 시술자에 의한 침, 수지침, 뜸, 부항(습부항), 사혈, 벌침 시술, 알려지지 않은 한약재 등으로 만든 주사액이 있었다. 이 중에 2회 이상 반복적인 유해사례를 일으킨 원인 추정요법으로는 봉삼과 초오를 복용한 요법으로 각각 3회와 2회, 외용법인 식초요법이 2회 및 무자격 시술자에 의한 벌침, 부항요법이 각각 3회와 4회가 있었다.

표 2. 민간요법과 관련된 유해사례

기사번호 (연도)	환자 연령, 성별	환자수	원인으로 추정되는 민간요법 또는 재료	시술자	사용목적 또는 적응증	발생한 유해사례	원인추정에 대한 설명*
1(2009)	18세, 여성	1	수지침, 부항요법	무자격 시술자	비만	호흡 곤란, 사망	쇼크
2(2009)	6세, 남성	1	홍삼 복용	어머니	면역력 증진	심한 가려움증	불명확
3(2009)	60대, 여성	1	붕상 복용	본인	건강 증진	소화불량, 황달, 독성 강염	간독성
4(2010)	사례1- 63세 사례2-6- 기록되지 않음	6	사례 1~6- 초오로 담근 약주	이웃	기록되지 않음	의식 감소, 구토	아코니틴 중독
5(2010)	소아, 여성	1	식초요법+	어머니	아토피 피부염	증상 악화	세균감염
6(2010)	48세, 남성	1	붕상 복용	본인	건강증진	황달, 독성 간염, 급성 간부전	간독성
7(2011)	1세, 남성	1	부항요법	무자격 시술자	아토피 피부염	출혈, 사망	쇼크
8(2011)	56세, 여성	1	붕상 복용	본인	원인 불명의 피부질환	황달, 독성 간염	간독성
9(2011)	사례1- 22세 사례2- 24세	2	사례1- 황도를 환부에 바름 사례2- 삼백초, 어성초, 국화 복용 및 식초요법	본인	사례1-아토피 피부염 사례2-아토피 피부염	사례1- 심한 가려움증 사례2- 증상악화	사례1- 접촉성피부염 사례2- 불명확
10(2012)	남성	1	복어알 복용	본인	아토피 피부염	호흡곤란	테트라독신 중독
11(2012)	56세	1	벌침요법	무자격 시술자	어깨통증	혼수상태	아나필락시스
12(2012)	65세, 여성	1	벌침요법	무자격 시술자	무릎통증	전신부종, 저혈압, 혼수상태, 사망	아나필락시스
13(2012)	63세	1	침, 뜸, 부항 요법	무자격 시술자	직장암	사망	불명확
14(2012)	사례1- 남성 사례2- 남성	2	사례1- (녹슨) 침 사례2- 뜸	무자격 시술자	기록되지 않음	사례1- 파상풍, 전신 마비, 사망 사례2- 화상	C1- 불명확 C2- 화상
15(2012)	66세, 여성	1	부항요법	무자격 시술자	기록되지 않음	호흡 곤란, 사망	쇼크
16(2012)	76세	1	초오 복용	본인	신경통	사망	아코니틴 중독
17(2013)	사례1- 50세, 여성 사례2- 44세 사례3- 53세	3	유통기한이 지난 마취제, 중국산 한약재, 미국산 산삼 등을 섞어 만든 한방 주사제	무자격 시술자	사례1- 난소암 사례2- 폐암 사례3- 간암	사례1- 사망 사례2- 사망 사례3- 사망	불명확
18(2014)	49세	1	벌침요법	무자격 시술자	관절염	어지럼증, 사망	아나필락시스

+ 식초요법 - 백반과 식초를 섞어 환부에 바름

* 원인 추정에 대한 설명 - 저자의 의해 분석됨

4. 사용 목적 또는 적응증

아토피 피부염이나 원인 불명의 피부질환 같은 피부 질환과 어깨나 무릎 통증, 신경통, 관절염 같은 근골격계 질환, 직장암, 난소암, 폐암, 간암과 같은 악성 종양을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치료가 주요 적응증이였다, 면역력 증진과 같은 건강증진이 있었고, 그 외 적응증이 기록되지 않은 기사들도 있었다.

5. 발생한 유해사례

발생한 유해사례로는 소화불량, 어지럼증, 증상 악화, 호흡곤란, 심한 가려움증, 화상, 의식 감소, 구토, 황달, 독성 간염, 급성 간부전, 혼수상태, 파상풍, 전신마비, 사망 등이 있었다.

소화불량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경증의 유해사례보다는 주로 호흡곤란, 혼수상태, 사망과 같은 중증의 유해사례가 많았다.

6. 중대한 유해사례

중대한 유해사례로서 사망이 11명이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복용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시술에 의한 사망이었다.

IV. 고찰

최근 5년간 민간요법 유해사례의 사례와 관련된 기사 수는 2009년 3건, 2010년 3건, 2011년 3건, 2012년 7건, 2013년 1건, 2014년 1건으로 총 1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이는 민간요법에 의한 유해사례로 인한 사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사내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민간요법 사용 중에 2회 이상 반복적인 유해사례는 초오, 봉삼과 같은 독성 약초의 복용 후에 발생하였다. 초오는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한 이삭바꽃(*Aconitum kusnezoffii* Reichb.), 늦짓가락나물(*Aconitum ciliare* Decaisne) 또는 세잎돌쩌귀(*Aconitum triphyllum* Nakai)의 덩이뿌리로서 항염, 강심, 진통, 혈류 증가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절통, 중풍반신불수, 신경통 등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초오의 독성이 커서 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독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흑두와 생강으로 포제(또는 수치)하여 사용한다[11][12]. 서양에서는 이미 그 독성으로 인하여 의료용으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만 동물 실험 시 부정맥 유발 약물로 사용하고 있다[13]. 또한, 초오는 '독성주의 한약재' 21개 품목 중 하나로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는 일반인이 쉽게 구매해서 섭취할 수 없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 관리 규정'에 의해 유통 관리되는 한약재이다[14]. 초오를 복용한 후에 사망한 사례가 알려진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반인이 독성 약물을 직접 구매 또는 섭취를 금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하였다[15]. 따라서 일반인이 초오를 직접 채취하거나 불법적으로 구매해서 생품을 술에 담그거나 적절한 포제 없이 달여 복용하는 등의 올바른 제조방법 또는 적응증의 오용 및 과량을 복용하게 되면

언제든지 전신 및 입주위의 감각 이상 등의 신경계 증상과 오심과 구토 등의 소화기계 증상, 다양한 심부정맥과 저혈압의 순환기계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의 처방과 지도 없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6-18].

봉삼은 한약재명으로 백선피(*Dictamnus dasycarpus*)이며 운향과(Rut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목으로 주로 그 근피를 건조하여 사용한다. 한의학에서 피부습진소양을 치료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약재인데, 흥미롭게도 민간요법에서는 강장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19]. 민간에서 건강증진 목적으로 환자 자신이 직접 백선을 채취하여 복용한 후에 간독성을 일으켜 급성간염이나 전격성 간부전과 같은 심각한 간손상이 발생하는 유해사례 또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20-22].

둘째, 민간요법 중에 시술을 받은 후 유해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무자격 시술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사, 침, 뜸, 부항요법, 벌침요법 등이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시술자에 의해 적절하지 않게 시술되거나 불분명한 약물을 주사함으로써 사망과 같은 중대한 유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부항요법은 활용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통증감소, 면역기능향상, 혈중 지질감소 등의 효능이 있다[23]. 그러나, 습부항요법을 환자 본인이나 무자격 시술자에 의해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시술할 경우 심각한 철 결핍성 빈혈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비가역적인 심장비대증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4][24]. 본 연구에서와 같이 부항요법 후에 사망과 같은 중대한 유해사례가 발생한 것은 쑥뜸방, 피부관리실, 생식원, 부항동호회 등 무허가 장소에서 손쉽게 시술하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만 관심을 두고 무자격 시술자들이 주의사항, 금기 및 안전성에 대한 지식의 부재와 환자에게 안전에 대한 고지 없이 단기간에 부항을 과도하게 시술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벌침요법은 꿀벌의 봉독을 추출 가공하여 사용하는 약침요법의 일종인 한의학의 봉침요법과는 달리 민간에서 양봉업자 등이 직접 꿀벌에서 채취한 침을 이용하여 환자의 환부를 자극하는 방법이다[25]. 봉독은 국소 염증반응 및 전신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등과 같은 유해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의 적절한 감시와 통제 안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 의한 무분별한 사용으로 벌침이 체내에 남아 있어서 이물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을 형성하거나 심각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를 일으키거나 또는 아나필락시스 후에 파종성 혈관내 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로 사망하는 유해사례도 보고되었다[26-28].

그 밖에 본 연구의 민간요법 유해사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 평소 아토피 증세가 있는 생후 10개월 여아가 맥문동과 치자나무를 끓인 물에 빠져 온 몸의 60% 가량이 2도 화상을 입은 뒤 일주일 만에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29]. 이 사례는 민간요법 사용으로 인한 유해사례가 아닌, 민간요법을 시술하는 준비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반인에 의한 시술의 위험성을 보였다. 또한, 외국에서 들어온 민간요법을 사용한 후에 발생한 유해사례도 있었다. 네팔에서 민간의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졌으나 국내에선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유통을 금지시킨 히말라야산 석청을 심장질환을 앓아오던 50대 남성이 섭취 후 사망한 사례이다[30]. 이는 히말라야산 석청에 포함된 독성 물질인 그라야노톡신(Grayanotoxin)의 독성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31].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요법 부작용에 대한 기사 중에 사례(case)로만 한정하여 충분한 민간요법의 유해사례 기사를 다루는데 부족하였다.

둘째, 검색대상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결과로 나오는 기사 외의 결과물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셋째, 민간요법 유해사례 관련 기사의 수집 기간이 최근 5년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유해사례 기사가 검색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민간요법 유해사례 기사의 특성상 내용이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특정 검색어로 모두를 아우르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다.

민간요법의 유해사례에 대한 기존연구는 주로 민간요법으로 발생한 유해사례에 대한 증례 연구 및 증례군

연구와 민간요법에 관한 연구 중에 일부 유해사례를 기술한 단면연구가 있다[3][5-7][19-22][24-28][32]. 한의학의 침, 뜸, 부항요법 등 시술요법에서는 유해사례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한 연구가 있으며, 그 중에 민간요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 또는 본인에 의한 시술이 포함되어 있다[4][33][34]. 민간요법으로 발생하는 모든 유해사례가 논문으로 보고되지 못하며, 그 일부는 뉴스 기사로 사회에 알려지며, 또한 경미하거나 흔한 상당수의 사례는 보고되지 않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논문으로 보고된 민간요법 유해사례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터넷 뉴스 기사 검색을 통해 반복되며 발생하는 중대한 유해사례의 양상과 위험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터넷을 통한 건강 정보의 교류는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그 정보의 질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35]. 게다가 민간요법은 셀프케어의 흐름과 맞물려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호간의 교류가 빈번하여 앞으로도 그 이용이 계속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요법의 유효성에 대한 정보가 과장, 오류가 있거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전혀 언급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조심하면 된다는 식의 근거 없는 정보를 믿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특히 영유아, 노인, 수술을 받은 직후 등 신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나 중증 또는 만성 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민간요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요법 중에 특히 초오, 봉삼과 같은 독성 약물의 구매나 조제 및 침, 뜸, 부항요법, 벌침요법과 같은 침습성 시술의 경우에는 무자격자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요법의 위험성 홍보 및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민간요법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해사례에 대한 보고나 감시에 대한 시스템도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체계 내에서 민간요법에 의한 사망과 같은 중대한 유해사례는 대부분 예방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국민의 보건의료측면에서 국가나 의료계가 민간요법 유해사례에 대한 위험성 홍보 및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 유해사례를 보고 및 감시하는 체계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1] S. M. Baek, S. M. Choi, H. J. Seo, S. G. Kim, J. H. Jeong, M. Lee, J. H. Park, S. J. Moon, and S. H. Lee,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performed by self or non-institutional therapists in South Korea: a communitybased survey,"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Vol.2, No.1, pp.25-31, 2013.
- [2] http://www.ytn.co.kr/_ln/0115_201208311728346273
- [3] 유태우, 김병익, 김진봉, 김동준, 김재우, 백순구, 김광석, 천갑진, "독성 간손상 관련 한국인의 약물 복용 실태와 건강비용 조사: 독성 간손상의 진단 및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다기관 공동연구", *대한간학회지*, 제13권, 제1호, pp.34-43, 2007.
- [4] T. H. Kim, K. H. Kim, J. Y. Choi, and M. S. Lee, "Adverse events related to cupping therapy in studies conducted in Korea: A systematic review,"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13.
- [5] 박준수, 이성우, 김상원, 박재복, "개구리자리에 의한 접촉피부염 1예", *대한피부과학회지*, 제42권, 제6호, pp.791-793, 2004.
- [6] 고수진, 조유숙, 서육장, 이태훈, 김형수, 김기덕, 김정권, 김윤이, 이재천, 이창근, 유빈, 문희범, "마늘에 의한 림프종성 접촉피부염 1예", *대한천식 및 알레르기학회지*, 제23권, 제3호, pp.548-552, 2003.
- [7] 김경한, 홍지희, 정훈, 정현아, "수족농포증에 목초액을 사용 후 발생한 자극 피부염 치험 1례", *한방안이비인후학회지*, 제27권, 제2호, pp.75-82, 2014.
- [8] <http://www.internetworldstats.com>
- [9] 전천후, 박정수, 박선주, 권기태, 신용철, 고성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인터넷 보도의 특성을 통해 본 한약 부작용 관리 체계 확립의 필요성",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15권, 제2호, pp.131-143, 2011.
- [10] https://www.drugsafe.or.kr/iwt/ds/ko/bbs/EgovBbs.do?bbsId=BBSMSTR_00000000041&nttId=273
- [11]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 교수 공편저, *본초학*, 영림사, 2004.
- [12] http://www.mfds.go.kr/files/upload/herbmed/photo_data/KHP328.pdf
- [13] 백상홍, "심혈관계 부작용을 보이는 생약제", *대한의사협회지*, 제48권, 제4호, pp.333-338, 2005.
- [14] <http://www.mfds.go.kr/index.do?mid=1013&seq=7046&cmd=v>
- [15]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19556&cmd=v>
- [16] 문정미, 이병국, 전병조, 윤한덕, 허탁, 민용일, "초오 중독 환자에서 심혈관계의 변화에 대한 고찰", *대한응급의학회지*, 제13권, 제1호, pp.55-60, 2002.
- [17] 김상철, 김영식, 하영록, 김호중, "밀주를 마신 후 발생한 집단 초오중독", *대한응급의학회지*, 제19권, 제3호, pp.339-345, 2008.
- [18] 김우식, 임성식, 강홍선, 조정휘, 김권삼, 송정상, 배종화, "급성 Aconitine 중독에 의한 심혈관계 부작용에 관한 임상적 관찰", *대한심장학회지*, 제30권, 제7호, pp.855-860, 2000.
- [19] 한창우, 승현식, 류광렬,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백선피(Dyctamnus dasycarpus)에 의한 약물유발성 간염 1예",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4권, 제2호, pp.374-379, 2003.
- [20] 장종순, 서의근, 한철, 채희복, 김순제, 이재동, 왕준호, "백선 복용 후 발생한 독성 간손상 4 예", *대한간학회지*, 제14권, 제2호, pp.206-212, 2008.
- [21] 김성한, 조원영, 김현건, 장재영, 심찬섭, 김부성, 진소영, "백선 (Dictamnus dasycarpus) 복용 후 발생한 급성 간염 1 예", *대한내과학회지*, 제76권, 제4호, pp.476-480, 2009.

[22] 안소연, 정재연, 김순선, 이다미, 석재연, 김영배, 조성원, “백선 복용 후 발생한 전격성 간부전 1예”, 대한내과학회지, 제78권, 제4호, pp.490-494, 2010.

[23] 이병이, 송윤경, 임형호, “부항요법에 대한 문헌 고찰 및 부항시술 현황 조사”,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제18권, 제2호, pp.169-191, 2008.

[24] I. S. Sohn, E. S. Jin, J. M. Cho, C. J. Kim, J. H. Bae, J. Y. Moon, S. H. Lee, and M. J. Kim, “Bloodletting-induced cardiomyopathy: reversible cardiac hypertrophy in severe chronic anaemia from long-term bloodletting with cupping,” European Journal of Echocardiography, Vol.9, No.5, pp.585-586, 2008.

[25] 유희준, 이창우, 양홍윤, 김경수, 김윤석, “벌침 육아종 3예”, 대한피부과학회지, 제36권, 제5호, pp.914-917, 1988.

[26] S. H. Lee, K. J. Sung, J. K. Koh, “Foreign-body Granuloma After Honeybee Acupuncture,” Annals of Dermatology, Vol.8, No.3, pp.215-217, 1996.

[27] 배의중, 손수빈, 서수홍, 손상욱, 김일환, “벌침 치료 받은 후 발생한 피부괴사를 동반한 이물 육아종 1예”, 대한피부과학회지, 제47권, 제3호, pp.350-353, 2009.

[28] J. W. Jung, E. J. Jeon, J. W. Kim, J. C. Choi, J. W. Shin, J. Y. Kim, I. W. Park, and B. W. Choi, “A fatal case of intravascular coagulation after bee sting acupuncture,”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Vol.4, No.2, pp.107-109, 2012.

[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1976248>

[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033466>

[31] 최기훈, 유기철, 왕순주, 박태진, “히말라야 석정으로 인한 중독 1예”, 대한임상독성학회지, 제10권, 제1호, pp.37-40, 2012.

[32] 고보영, 이현정, 김동재, 하석준, 하혜정, 박영민, 변대규, 김진우,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민간요법에

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제39권, 제1호, pp.16-21, 2001.

[33] S. Xu, L. Wang, E. Cooper, M. Zhang, E. Manheimer, B. Berman, X. Shen, and L. Lao, “Adverse events of acupuncture: a systematic review of case reports.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3.

[34] J. E. Park, S. S. Lee, M. S. Lee, S. M. Choi, and E. Ernst, “Adverse events of moxibustion: a systematic review,”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Vol.18, No.5, pp.215-223, 2010.

[35] G. Eysenbach, J. Powell, O. Kuss, and E. R. Sa, “Empirical studies assessing the quality of health information for consumers on the world wide web: a systematic review,” JAMA, Vol.287, No.20, pp.2691-2700, 2002.

저 자 소 개

박 정 환(Jeong Hwan Park)

정회원



- 2005년 2월 :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한의학학사)
- 2011년 10월 ~ 현재 :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민간요법, 의료정보, 유행사례

문 수 정(Sujeong Mun)

정회원



- 2008년 2월 : 원광대학교 한의학과(한의학학사)
- 2010년 8월 : 원광대학교 한의학과(한의학석사)
- 2013년 2월 : 원광대학교 한의학과(한의학박사)

• 2012년 5월 ~ 현재 :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민간요법, 의료정보, 유행사례

김 성 하(Sungha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한의학학사)
- 2013년 2월 :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한의학석사)
- 2013년 8월 ~ 현재 : 과학기술 연합대학원대학교 한의생명과학과 박사과정

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민간요법 전통지식 DB화, 경근학설의 과학화, 의료정보 빅데이터,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임상시험, Placebo

배 은 경(Eun Kyung Bae)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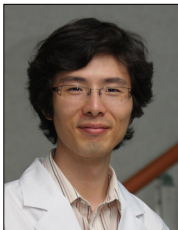


- 2010년 8월 : 연세대학교 의용전자공학과(공학사)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의공학과(공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한국 한의학연구원 연구원

<관심분야> : 민간기술 유해사례, 의공학, 생체신호처리

이 상 훈(Sanghun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한의학학사)
- 2008년 2월 :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한의학석사)
- 2012년 2월 :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한의학박사)

- 2009년 5월 ~ 현재 :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민간요법 전통지식 DB화, 의료정보 빅데이터